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5호 [주제 제26209호] 주제 107 (2018)년 12월 1일 (토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겨울철
집중어로전투가 한창인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
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 국무
위원회 일꾼들이 김창선
동지, 마원춘동지, 인민
무력성 제1부상 북군대장
서홍찬동지가 동행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5월 27일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
하시였다.

경애하는



들과 종업원들을 몸가까
이 부르시며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5월 27일 수산사업소의
혁명사적교양실, 행동
저장고, 통합조종실을
돌아보시면서 종업원
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
정형과 사업소의 생산과
경영활동 정형을 료해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집중어로전투의 환경에 맞게
어로공들에 대한 조직사상
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들고
필수 5대 교양을 전공적
으로 벌리모씨 그들을
당정책의 철대책 인
신봉자, 결절한 용호자,
칠저한 판철자로 튼튼히
준비시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5월 27일
수산사업소 지배인 고경룡동지를 비롯한
사업소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조선인민군 5월 27일 수산사업소는
사설 바다를 비우지 말고 물고기를
면바다에서도 잡고 가까운 바다에서도
잡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읊훈
을 철저히 관찰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문천지구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원양수산사업소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거울철집중어로전투에 진일한

인민군대 동해지구 수산사업소들의
물고기잡이 실적을 매일 보고받고
있는데 짧은 기간에 6만여t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어로공들을 만나 고무해
주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물소 《황금해-014》호고기 배에
오르시여 만선하고 귀향한 선장과
어로공들을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어로공들과 배전에 허풀없이 앉으시여
담화하시면서 어황이 조성된 데 맞게
드랄파 전착이업을 폐합하여 도루매기

집중어로전투를 과감하게 벌려나갈데
대한 문제, 어장함색의 과학화수준을
높여 중심어장을 신속히 타고앉아
전속적인 어로전을 벌려 항차당, 기망
당, 연유 11당 어획량을 늘일데 대한
문제, 당에서 마련해 준 고기배들의

기술관리를 더욱 개선하여 원성능유지
를 잘할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물고기잡이 전투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파업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수산사업소 어로공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 그들이 찬직정을
하지 않고 물고기잡이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식량과 기초식품, 미복, 각종 생활
필수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후방물자
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줄 때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고기배에서 금방 잡아온 물고기를
펴울리는 모습과 야외하루장에 쏟아
지는 물고기폭포를 보니 기분이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이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어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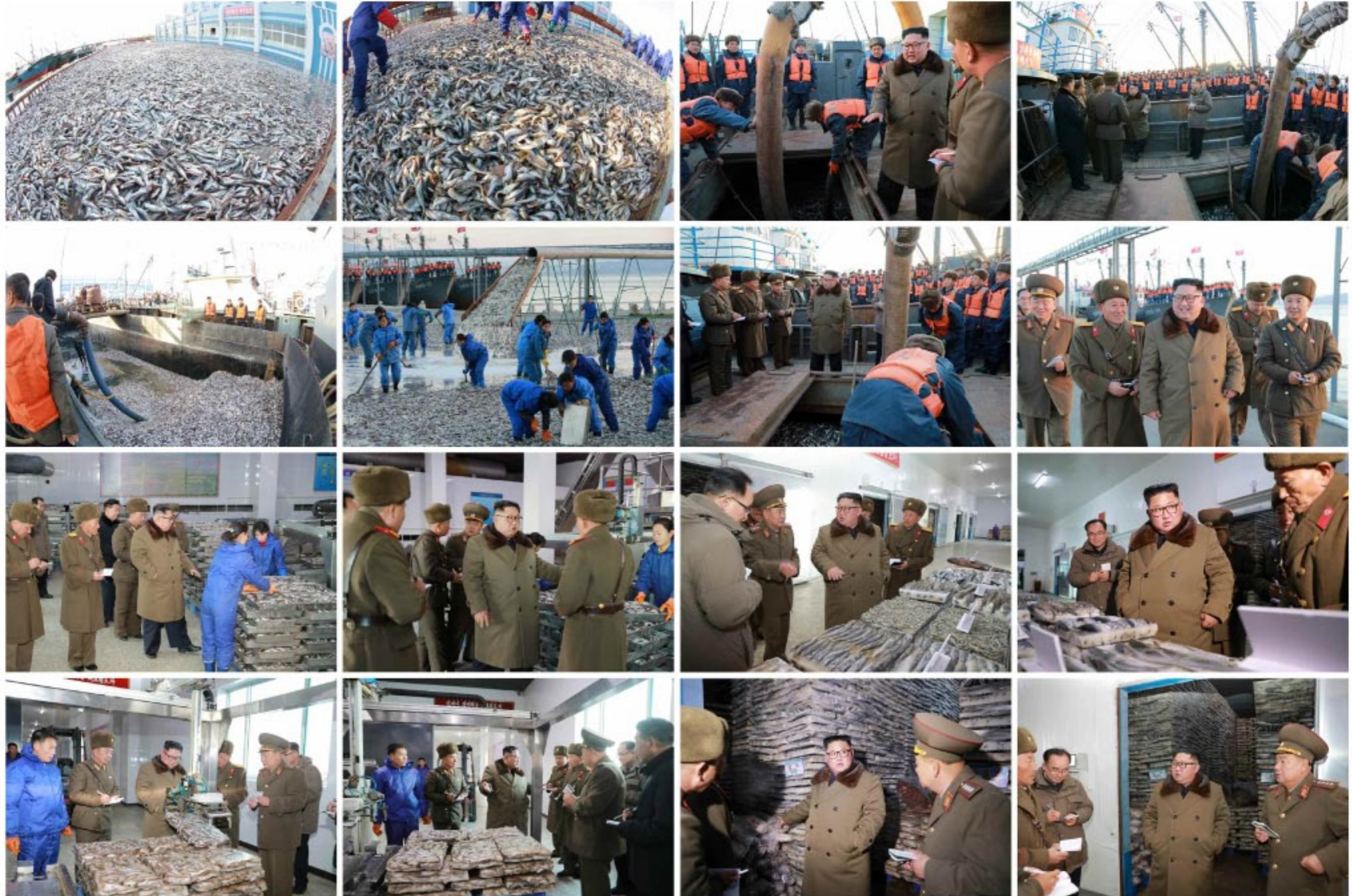
창조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행동저장고에 딱 들어찬 물고기들로
물을 보시며 보물산이라고, 금퍼
같다고, 집중어로전투기간 며칠 사이에
벌써 이렇게 저장고에 거의 다 채워
놓았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지금처럼 나가면 잡은 물고기들을
저장고에 넣어놓지 못할것이라고, 앞으로
급통능력을 년차별로 2~3배 더 조성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2 면 으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애서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물고기 랭동블록의 앞뒤면이 얼음으로 덮여야 물고기가 마르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랭동블록을 만들 때 랭동서랍에 물고기들을 끌고루 펴고 물량조절을 위하여 물고기블록가 얼음으로 도포한 것처럼 배끈하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랭동한 물고기블록을 비닐주머니에 넣어 포장하는 작업대를 만들어주며 자동포장기를 제작설치하여 손로동을 극력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5월 27일수산사업소 종업원들의 예술소조 공연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언제나 명랑하고 박진적으로 생활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공연을 정말 잘했다고, 험험하고 물고기비린내가 풍기는 구수한 공연이라고, 당정책으로 일관되고 사상성과 예술성도 잘 결합된 바다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니 미리가 다 맑아진다고 하시며 그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5월 27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물고기잡이성과를 계속 확대

하여 인민들과 군인들의 식생활에 참답게 이바지 하며 당의 수산혁명방침관철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8월 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8월 25일 수산사업소 지배인 윤용일동지를 비롯한 사업소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조직해주시고

티전 까지 잡아주시었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조국역사에 선군절로 기록된 뜻깊은 날에 다녀 가신 불멸의

령도사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8월 25일 수산사업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몸소 4차례나 현지지도하시며 우리 나라 황금해역사창조의 불길을 지펴주신 현신

의 자욱과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

에 널리 알려진 『단풍』호고기배들의

고향, 『바다 만풍가』의 고향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8월 25일수산사업소가 황금해역사창조의 고향, 『단풍』호고기 배들의 고향답게 전국의 제일 앞장에

서 실적을 올리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해나가고 있는데 대하여 축하하시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8월

25일 수산사업소는 『단풍』호고기배들의 고향, 황금해역사창조의 고향이라고, 이 수산사업소는 나라의 수산부문이 다 주저 앉았을 때 당에서 수산전선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투쟁의 불씨를 지펴준 사업소라고, 바로 여기에서 『단풍』호고기배들이 첫 출항을 한 때로부터 인민

군대 수산부문에서 새로운 대중적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었으며 황

금해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간회깊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수산사업소에 장비한 『단풍』호고기배들의 성능과 기술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물고기기공장과 랭동저장고, 종합생산지휘실을 비롯한 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당의 방침관철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수산사업소에서 1,500t 능력의 절임탕크를 짧은 기간안에 실리 있게 개조하여

3,000t 능력의 랭동저장고로 꾸린데 대하여서 와 일급동능력을 체계적으로 늘일데 대한 과업을 집행한 정형을 보고 받으시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수산사업소의 랭동저장고들을 돌아보시면서 저장고마다에 수천t의 물고기를 짹 채워넣고 있는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하고 있는 물고기기공장을 기계화, 자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인 기공장으로 품질에 푸려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공장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8월 25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물고기잡이에서 새로운 봉화를 지펴온 선구자, 본보기단위답게 앞으로도 황금해역사창조의 항로를 출기자

게 이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1월 8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1월 8일 수산사업소 지배인 파만억동지를 비롯한 사업소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푸른 물 출렁이는 둑해포구에 우리 나라 수산사업소의 표준, 본보기단위로 훌륭히 일떠선 1월 8일수산사업소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1년 365일 선선한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해주시며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친애버이사랑에 의하여 조직된 수산사업소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어로공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며 물고기를 하선하는 고기배 『단풍 18-01』호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울해사업소에서 멸치, 숭어, 고등어, 전어, 삼치, 도루미기물 비롯한 물고기를 고기배 척당 1,000t 이상 잡아 계획을 초과수행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월 8일수산사업소를 조직할 당시에는 수산사업소에서 해마다 3,000t의 물고기를 잡아 전국의 모든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원이들과 양로원의 로인들에게 매일 300g의 물고기를 정상

공급할데 대하여 과업을 주었는데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이제는 하루에 400g씩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잡은 물고기를 다루는 과정에 물고기를 오염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창에서는 물론 하목, 선별, 랭동, 저장, 공급에 이르기까지 물고기를 다루는 모든 공정들에서 위생학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엄격한 질서를 세워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물고기들의 선도를 보장하는 사업에 깊은 주의를 둘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역이 오염되었을 수도 있고 윤반과정에 보관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변질될 수도 있는 것 만큼 사업도 강화하여 원아들과 보양생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만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여야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1월 8일 수산사업소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종등학원, 일로원 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단위 인것만큼 물고기잡이에서의 과학화수준과 운반, 가공처리에서의 자동화, 현대화수준이 다른 수산사업소들에 비하여 질적으로 높아야 하며 물고기들에 대한 품질검사

사업도 강화하여 원아들과 보양생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만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도루데기 어장에서부터 수산사업소까지

윤반거리가 먼 조건에서 수송과정에 물고기들이 변질되지 않게 고기배와 팽동선, 윤반선으로 선단을 무어 내보내며 가공장의 면적을 늘여 잡은 물고기들을 모두 실내에서 가공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000t급 팽동저장고를 돌아보시면서 수산사업소별로 물고기행동률로크의 무게가 서로 다른데 팽동서랍의 크기를 통일하여 규격화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1월 8일 수산사업소는 당에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종등학원 원아들과 양로원 로인들의 생활을 직접 책임지고 돌봐줄것을 결심하고 조직한 수산사업소이며 자신께서 제일 중시하는 최고사령부직속 수산사업소라고 하시면서 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국의 맨 앞장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

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를 간편속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돌아보며 물고기선을 쌓아놓은것을 보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정말 좋다고, 대단히 만족하고 하시면서 매일, 매달 물고기잡이 실적을 보고받을 때마다 자신께서도 시간을 내어 어로공들과 함께 바다에 나가 물고기들을 잡고싶은 심정이라고 말씀하시였다.

4 면 으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3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번에 보니 수산사업소들의 일군들이 제나름대로 관리, 경영 관리, 300일 출어일수보를 다 공리가 있고 경영 활동을 잘 해보려는 일욕심들이 높은데 정말 마음에 듣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날마다 격히 충화하며 경험을 교환하고 일반화

에 집중되어가 끝난 다음 진행하는 민민 군대 수산부문 혁성자회의 및 경험발표회에서 올해 계절별 물고기 잡이 실적과 기업 관리, 경영 관리, 300일 출어일수보를 다 공리가 있고 경영 활동을 잘 해보려는 일욕심들이 높은데 정말 마음에 듣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날마다 격히 충화하며 경험을 교환하고 일반화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 층으로 틀어쥐고 적극 발전시켜나가면 인민들과 군인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 군대가 앞으로도 황금해역사창조의 선구자

에서 이룩한 성과와 나라난 결함들을 엄격히 물고기 보관관리, 품질검사사업

계속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를 받은 조선인민군 5월 27일 수산사업소와 8월 25일 수산사업소, 1월 8일 수산사업소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더 많이 먹이

시며 평양에서 수백리 떨어진 자기들의 일

안겨주시며 보다 높은 생산적 양양에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흘리면서 항금해의 역사를 빛내이는 새로운 어로신화를 계속 창조해나갈으로써 온 나라 수산부문의 전진비약을 힘 있게 선도해나갈

부문의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여러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미국의 UPI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대관유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면서 종영원들에 대한 사상교육사업을 강화할 때 대하여 밝혔습니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모동계급이 국가사

정이 어려운 속에서도 나라의 과학교육

과 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광학유리 제품들을 생산보장하기 위해 원심적으로 두정하며 전술하게 조선료통당의 정책을 만들었다고 하시였다.

북조선령도자께서는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이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

그이께서는 세상은 빠르게 변하여 발전해 가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의 현대화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공장의 전반적인 생산율과 제품검사품질에 대한 현

우리는 국제사회가 조선반도 정세와 북남화해를 위한 조선의 성의있는 조치들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설 것을 바라면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엄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현대성을 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우리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며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최근 조선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데 대하여 환영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엄은 국제적 정의와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적 범위에서 사회주의 위엄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기 위한 공산당, 로동당들의 주장을 대한 적극적인 기여로 된다.

우리는 조선민족내부문제에 간섭하고 조선에 대한 부당한 제재와 압력에 대처하고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최근 조선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데 대하여 환

영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사

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조선로동당

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엄은 국제적 정

의와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적 범위에서 사

회주의 위엄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

기 위한 공산당, 로동당들의 주장을 대한 적극적인 기여로 된다.

우리는 조선민족내부문제에 간섭하고 조

선에 대한 부당한 제재와 압력에 대처하고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최근 조선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데 대하여 환

영한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주통적인 노력을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

서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전보장을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

선인민의 정의의 위엄을 지지하

는 통산당, 로동당들의 현대성

기여로 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또한 공산당, 로동당들과 진

보적인 민족사의 호상성지와

현대성을 표시하기 위한 공동행

동을 강화하는데 대한 호소문이

급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고

마스트로동당과 브라질공산

사회주의 리념을 고수할 의지를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여러나라에서 결성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가 11월 23일로 러시아연방 공산당 하바롭스크번강위원회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미서 알렉산드르 그로모코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및 나는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및 나는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정일령도자회고로 브라질공산당 위원회가 11월 20일에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브라질공산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브라질공산당 위원회 위원장 에스파이로 모친으로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

조국 강산에 떠나리 치는 인민 행렬자의 기적소리

사무처는 그려 올해에 12월의 새날이 밟아왔다.

어버이 정글님에 대한 열화 같은 정보의 것으로 품어버지는 인민의 마음속에 그이께서 출마하시면서 인민행렬자의 기적소리가 펼쳐져 메아리쳐 오고 있다.

인민행렬자!

그 이름 불러보느라 면 애전행렬자를 점수질로, 숙소로 정하시고 온갖 료고를 다 치시며 품임없는 초강도 강행군길을 이어 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현신의 자족자육이 승언히 안겨왔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실상의 미지막박동까지 바쳐 가지며 인민행렬자의 기적소리를 놀이 울려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의 거룩한 활동은 경건히 들이켜보는 인민의 깊숙마다에 철새의 애국,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우리 장군님에 대한 더한 탐험을 그리움의 파도가 세차게 일렁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과 모든 것을 쌓아온 대비사』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으시고 순간의 흐름도 없이 초강도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다가 달리는 행렬에서 순직하신 장군님과 같으신 그런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혁명생애의 미세미세 주제 100(2011)년 12월의 나날을 더듬어보며 인민들은 오늘도 속구하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한다.

항행 날도 사업을 험지지도 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열차에 오르시았다.

12월 25일까지는 특별히 전강에 주의 하셔야 한다고 의사들이 말씀드린것이 바로 얼마전이었다.

그 걸을 떠나실 때에도 의사들과 일군들이 출면서 못 가신다고 말하 하셨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 올랐다.

2.8미터로 높은 학기역업소 금수수제지, 흥성기계련합기업소 불공장, 향촌직공장, 홍남구두공장...

함남의 불길들이 대고조의 알광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 함흥시의 어머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훈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넘어서 텔레비죤화면을 통하여 떠오르면서 그이의 불같은 훈신과 놀고 가슴찢어들면 우리 인민이었다.

하나 우리 인민들은 12월의 맹顽 추위도 이랑곳하지 않으시고 인민을 찾이, 병사들을 찾이 품임없이 고집으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 한걸음한걸음에 얼마나 큰 파도로 겁 쌓아있었는지 다 알수 있었다.

항행 날도 험지도 하신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걸친드는 정신 유태석과로를 이겨내시며 12월 15일에는 하나음악정보엔터테인트구구장에서 공연을 펼쳤으셨다.

방북지구상업 중심에 상품들을 가득 채워놓은 것을 보니 추운 날이지만 마음이 허기진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해놓았을 때가 세일 기쁘다.

돌이켜보면 어버이 장군님께서 인민들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면서 자신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정을 맡아 뜨겁게 말씀하신 위대한 장군님,

바로 이런 고걸한 인생관을 지니신분이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각까지도 그처럼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의 온힘을 장고로 불태우시었다.

12월 16일 밤 인민생활과 관련하여 세계기원 물체를 보여 하신 어버이 장군님께서는 필요한 대책까지 세워주시었다.

그남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

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면서 안됩니다.』

『지금상태로는 못 떠나십니다. 제발...』

일군들은 이렇게 애원하며 무작정 그이의 앞걸음을 멈추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굳이 만류하는 일군들의 심정이 이해되시였다.

하지만 그이께서 이 길은 우리 수령님 말기고 가신 인민을 위한 길이었고 누구도 대신 할수 없는 길이었다.

어느덧 어버이 장군님을 보신 어전 열차는 풀밭은 수도의 거리를 위에 두고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출발하였다.

그날의 우리 장군님의 애전행렬자의 기적소리.

정생 그것은 곧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충만한 철세위인의 물라는 심장의 박동소리였다.

마고 그래서 12월이면 온 나라 인민의 가슴가슴은 어버이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이으로 더더욱 세계 고동울리는 것이리라.

들이 켜보면 어버이 장군님께서 인민들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면서 자신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정을 맡아 뜨겁게 말씀하신 위대한 장군님,

이들이 신적 있었던가.

일제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인민들 속에 들어가 온들 갈

이하는 것을 어김수 없는 혁명일파로

삼으시고 조국땅 방방곡곡에로 인민

행렬자의 기적소리를 즐기자며 울려

가신 우리 장군님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강도를

찾으시었던 어느 1월의 못 잊을

이야기가 있다.

장군께서 계

수되면 그날에 도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열차는 자강

도를 향하여 달리고 있었다.

시간이

그리고 떠나서

제3차

일군들은 이렇게 애원하며 무작정

그이의 앞걸음을 멈추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굳이 만류하는 일군들이

시작되었는데 좀 쉬운 유기기를 간질히

말씀드렸다.

일군의 간절한 청을 받으시며

그이께서는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오늘은

방법으로

나를

